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2016. 7. Vol 241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여우비 오후

환하게 웃는 얼굴로
눈물 뚝뚝 흘리는
너의 진심이 궁금할 때
망초 꽃 한 무리 성큼 다가선다

부드러이 어루만지는 산들바람 한 줄기에도
한 생애 허우적거리듯
온몸 내던져 간절한 춤을 추지만
땅속 깊은 뿌리는 척추를 곧추 세우고
푸른 줄기 속속들이 바람의 속살을 들이는데

꽃대 가득 고인 울음 해일처럼 솟구치다가
여우비 환한 낮빛에 화답하듯 무너지며
미소 품은 얼굴마다엔
소복소복 노란 해님을 부화하는
여우비 오후



김 은 숙

- 충북 청주출생. 시인, 미원중학교 수석교사
- 1996년<오늘의 문학>으로 작품 활동 시작
- 시집 『그대에게 가는 길』, 『창밖에 그가 있네』
- 산문집 『갈참나무 숲으로 가 있을』
- 제13회 내륙문학상 수상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6. 7. Vol 241

Contents



영동 강선대

강물에 비친 낙랑장승과 석대(石臺)가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하늘에 있던 선녀 모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강선대(降仙臺) 영동의 양산팔경 제2경으로 꼽힌다.

- 04 | 제348회 정례회 주요내용
- 06 |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
- 08 | 충북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 09 | 충북 염소산업 발전방향 모색 정책 토론회
- 10 | 남부권 발전전략 정책 토론회
- 11 | 자문위원 특강/성폭력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
- 12 | 우수의정대상 시상
- 13 | 각 위원회 활동상황
- 21 | 5분 자유발언
- 24 | 제348회 정례회 주요처리의안
- 26 | 건강·법무상식
- 28 |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 의원논단

- 발행일 2016년 7월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언구
-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043) 220-5123 ● FAX (043) 220-5119
-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buk.kr>



충북도의회는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 제348회 정례회를 열고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의결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348회 정례회

“도민과 동행”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 201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승인, 조례안 심의 의결 -

민생관련 토론회 등 개최하며 지역현안 해결 앞장

충북도의회(의장 이연구)는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개최,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남부권 발전전략 정책 토론회, 충북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충북 염소 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등 민생관련 토론회와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2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개회 첫째 날인 6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충청북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타 안건들을 의결했다.

또 임희무·엄재창·임순목·정영수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공직자세 확립과 시·군 부단체장의 역할 제고 기대 △충청북도 하천관리 문제점 △문장대



제 348회 정례회 주요처리의안

의안 23건 : 조례안 15, 승인 4, 동의 3, 기타 1건

-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
- △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
- △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 △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초안 공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주제로 각각 대책마련과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또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임희무 의원으로부터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온천개발을 백지화하겠다”는 각오를 들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6월 23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임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 김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심의·의

결했다.

이어 이숙애·이양섭·이광진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체계에 대한 강화 필요성 △농어촌공사 진천·음성지사 통폐합 철회 △죽음의 땅 충북을 부르는 사드배치 결사반대 등을 주제로 각각 대책마련과 시정·개선을 촉구했다.

이언구 의장은 제10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주재하며 “제10대 전반기 도의회는 411건의 안건처리와 121건의 조례 의원발의라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며 “매회기마다 대집행부질문 실시를 통해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22건의 건의·결의를 통한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대처했으며 의회독립 청사 건립, 무상급식 분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 해결 등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중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이 의장은 또 “이러한 성과를 거두면서 전반기 2년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 보내준 도민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경험을 거울삼아 후반기 2년의 의정활동도 도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충북도 의회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 위해 끊임없는 정진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확인... 민생의 소리 의정에 담아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의정목표로 2014년 7월 8일 개원한 제10대 충북도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제10대 도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고, 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

도의회는 개원 이후 5회의 정례회와 12회의 임시회를 개최하는 등 총 17회에 걸쳐 243일간의 회기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4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 민생관련 조례 121건을 의원 발의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

했다.

또한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 특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결의안’ 등 충북의 미래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들에 대한 해결에 적극 앞장서 왔다.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 충실

도의회는 개원 이후 2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226건, 건의사항 453건 등 총 679건의 실적을 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행정운영이 도민의 뜻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이끌었다.

도의회는 특히 질책만이 아닌 칭찬과 격려로 도정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는 소통과 상생의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제10대 도의회는 대집행부질문 16회기 23명, 5분 자유발언 109회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여과 없이 전달하여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촉구했다.

제10대 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현안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민과의 대화를 적극 실천하고, 지난해 2월 25일에는 32명의 의정참여단을 위촉하여 도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했다.

특히 ‘충주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도민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보여줬다.

도민의 '목소리' 를 의정에 담다

도의회는 의정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했다. 2014년 11월부터 본회의 TV 생방송과 녹화방송, 수화통역을 실시해 도민들에게 의정활동 상황을 알리고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정책토론포럼을 개설하여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도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의정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올해에는 '상임위원회 HD디지털 인터넷방송 구축사업'을 추진해 본회

의에 이어 상임위원회까지 인터넷 생방송 및 녹화방송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생생히 알리고 도민참여를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도의회와 도의원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교실과 진로체험'을 확대 운영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 시민의식을 키워주기 위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은 도의회

도의회는 그동안 외유성 관광으로 사회적인 불신을 초래했던 국외연수활동 등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국외연수활동 등에 대해 '사전설명회'와 '자체 귀국 보고회'를 개최, 모든 의원들이 이를 공유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외연수 제도를 개선했다. 또 의원 연구활동도 제9대 의회의 5건보다 2배 이상 많은 12건을 추진하는 등 성실히 공부하고 배우며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제10대 의회가 지난 2년 동안 도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충북건설을 위해 스스로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청렴하고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역대 의회에서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정책을 실천했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2014년 11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충북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해 보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도민들께 다가갈 준비를 마쳤고, 같은 해 12월 9일에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과감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직접 발로 뛰며 도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도의회 청사건립을 제10대 의회 현안과제로 정하고 '도의회 청사건립 타당성 및 입지 결정 분석용역'을 실시했으며 독립청사 필요성 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청사 건립을 위한 대도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4월 15일에 도의회 청사건립의 토대 마련을 위한 (전)중앙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2018년도에는 명실상부한 '독립청사'를 도민들께 열린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무상급식·누리과정 중재 노력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도민들께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분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중재와 공개토론회, 1인 피켓시위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동원하여 수차례 촉구하며 설득과 협의의 과정을 이끌어 냈다. 이연구 의장은 "2년여 간의 전반기 도의회는 2014년 7월 제10대 의회가 힘차게 출발하여 도민의 뜻을 정확히 대변하고 집행부

에 대한 강한 견제를 통해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보낸 시간이었다"며 "그러나 매 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름길이 아닌 정도(正道)로 나아가다보면 반드시 본도(本道)에 도달한다는 행불유경(行不由徑)의 뜻을 거듭 새기며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반기 마무리 소감을 밝혔다.

도민 건강보호 위한 미세먼지 대응방안 모색

정책복지위, 현실진단·절감대책 마련 정책 토론회 개최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건설소방위원회는 6월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져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의 호흡기 계통 질환자 발생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및 경보 시스템 현실을 진단하고 절감대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원,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의 취지 설명에 이어 2시간 30여분에 걸쳐 충북의 미세먼지 현황 및 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일건 아주대학교 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14년도 기준 대기질 모델링을 이용해 지

역별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성분별·권역별 기여도를 설명하고 노후차 저공해화 사업 대책으로 △사업장 등 배출시설 관리 △자동차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운섭 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대기조건, 다양한 오염원 및 계절별 분석 데이터 측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배민기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장은 도민 건강에 초점을 두고 미세먼지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노영원 현대HCN 충북방송 보도제작본부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화력발전소의 49%가 인근 충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정부는 화력발전소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증설 억제를 위한 충청권 공조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종현 충북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은 지역적으로 고른 정보 수집을 위해 청주시 서원구 지역에 측정망 추가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홍현대 도 환경정책과장은 정부의 특별대책과 연계한 충북의 미세먼지 관련 단기·장기대책을 제시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장선배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 발생원 및 현황을 짚어보고 도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해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조례제정과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복지·건설소방위원회는 6월 27일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장선배 의원의 진행으로 「충북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실시했다.

충북 염소 산업 현실진단과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경제위, 축산농가·전문가 초청 정책 토론회

충북도의회가 충북 염소 산업의 현실진단과 효과적인 염소사육 발전 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염소농가 및 축산 전문가 등 200여명을 초청해 '충북 염소 산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양섭 위원장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이지웅 교수의 '충북 염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대구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서병부 교수, 충북연구원 우장명 선임연구위원, 농업컨설턴트 이일호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민 사무관, 국립축산과학원 최순호 농업연구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이지웅 교수는 육류 소비시장 및 소비형태의 변화와 흑염소 산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북 흑염소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사육두수와 농가수 △소비량 및 규모 △수입량과 가격현황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흑염소 도축장의 부족

과 품종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 미흡, 표준 사육 매뉴얼 및 질병 백신 프로그램 부재, 유통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충북 흑염소 산업의 발전방안으로는 △건강식품으로의 가치홍보 △능력 검증된 재래흑염소와 외래도입종 모축 육종 △지속적인 사육기반 조성으로 전업농가 육성 △표준 사양 기술 적용으로 생산성 개선 △생산이력제를 이용한 유통체계 구축으로 유통기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실시된 2부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흑염소 사육을 위한 교육 수준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축산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급 부족을 지적하고 흑염소 사육 농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충북 대표 염소 개발 및 브랜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북농업과 연계한 '염소스토리' 발굴과 염소를 통한 고부가가치 6차 산업화 접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양섭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로 충북 염소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축산업 발전과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업경제위원회가 주관한 '충북 염소 산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5월 30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농업인단체, 축산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부권역 동반성장 견인할 마중물 역할 기대

건설소방위, '남부권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6월 17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남부권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진단과 새로운 도전전략'을 주제로 '남부권 발전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계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부권역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이태훈 충북도 균형발전과장의 '충청북도 남부권 균형발전 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설명 후 분야별 전문가 주제토론 및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충북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미래지향적 균형발전전략을 모색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남부권 지자체간 동반성장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있다"고 밝혔다.

이경태 보은군 부군수는 "1~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인구 상승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보은군이 가진 자연환경과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연계하는 치유형 힐링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손자용 옥천군 부군수는 "그동안 추진하였던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로 안정적 수익원이 창출됐다"며 "앞으로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의 연계추진 및 대청호 규제를 친환경적으로 극복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사환 영동군 부군수는 "1~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와인명품화 조성 및 국악관광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특히 3단계 균형발전사업에서는 복합테마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남부본부장은 △남부권 전략협의체 설치 △소프트웨어 정책 추진 △도농상생 관점의 지역균형발전 △다원적 기능 강화 및 참여문화 조성 △중핵도시 설정 등 남부권 균형발전정책 5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건설소방위는 토론회에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소관 실국에 전달해 남부권 균형발전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6월 17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결산심사 대비 특강 및 학교 내 성폭력 해법 모색

행정문화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 대비 자문위원 특강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희무)는 6월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를 대비하여 자문위원들을 초청해 특강을 들었다.

임희무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홍보·입법분야에 김종만 전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화·관광분야에 김화진 전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행정분야에 이장희 현 충북지방자치학회장이 참여해 각 분야별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결산검사 주요 착안사항과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한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사업목표 대비 운영성과 파악, 예산편성내역과의 괴리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심의기법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임희무 위원장은 “이번 특강에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의 잣대로 충청북도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운영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제10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도민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결산심의 대비를 위한 자문위원 특강을 실시했다.

교육위원회,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해법을 찾기위한 간담회 개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월 17일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이숙애 의원 주관으로 ‘충북 성폭력 상담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지역 성폭력 상담전문가와 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북도내 학교 성폭력 현황과 성폭력예방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현장 관리자들의 인식부족과 불합리한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그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소극적 치료 △학생들의 인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성폭력예방 교육의 실태 △일원화되지 않은 도교육청의 업무시스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관리자들의 인식변화를 최우선으로 제시하며 관리자 성폭력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된 연수 강화 △성폭력 관련 담당업무의 통합과 일원화된 업무처리 시스템 마련 △성폭력 예방 교육시수 및 예산 확보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까지 성폭력 예방 교육확대 필요 △다양한 성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과 운영 내실화 노력 필요,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의식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기관 간 협업 증진 등이 제시됐다.



교육위원회는 5월 17일 이숙애 의원 주관으로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충북 성폭력 상담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임회무 · 윤홍창 · 이숙애 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위해 노력한 공로 인정



충북도의회 임회무 · 윤홍창 · 이숙애 의원이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 주관으로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개최된 ‘제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충북도의회 임회무 · 윤홍창 · 이숙애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매년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가 세 번째다.

임회무 의원은 행정문화위원장을 역임하며 103건의 안건을 처리, 그 중 23건의 안건을 의원 발의토록 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정책대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5분 자유발언 8회, 언론사 기고 12건 등 제20대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내 여론 조성에 앞장섰으며,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 해결에 앞장섰다.

윤홍창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 지역 현안

문제 갈등조정 및 해결을 위해 도정·교육시책에 대하여 5회의 대집행부질문, 2회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등 폭넓은 입법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적극적인 집행청 견제와 감시활동을 통해 도정과 교육에 대한 정책방안과 비전을 제시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윤 의원은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으로 2014년에 이어 2회 연속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숙애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 방과 후 운영 개선 정책 토론회’ 등 3회의 정책 토론회 개최, 지역 현안 및 교육관련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15회이상 개최하는 등 도민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 했고 ‘충청북도 학생중심 성·인권교육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등 의원 연구활동을 통한 지역 현안분석과 정책개선 방안을 적극 제시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며 충북교육 발전에 공헌한 바를 크게 인정받았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48회 정례회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의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한범)는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8일 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의회사무처 현안 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실시한 간담회에서는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본회 의장 의석 배정을 전반기 의석 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의정참여단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운영 규정’ 개정에 대한 보고와 충청북도교육청의 ‘누리예산 재의요구의 건’ 처리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기타사항으로는 6월 20일부터 6월 21까지 이틀간 안동·포항지역 일원에서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위원회는 또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입징수결정액은 162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액은 89억 6,138만 7000원으로 이

중 84억 7,55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4억 7,48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결산심사에서 엄재창 의원은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불용액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주문했고, 김학철 의원은 다양한 국가와 지방정부의원과의 교류 활성화를 요구했다. 또 박우양 의원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박한범 위원장은 국외여비의 불용액 과다발생을 지적하며 국제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예산수립부터 철저한 준비와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그리고 제3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14일간 개최하기로 하고 의안심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7일에는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7월 8일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48회 정례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 등 제정



정책복지위원회는 6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48회 정례회 운영 및 상정된 의안들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고 소관 부서와의 현안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6월 8일 실시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박한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임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또 박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봉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6월 9일 실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박한범 의원은 예산 현액 대비 91%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예산성과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하며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선배 의원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 및 도민의 행복을 위해 추진하는 도정 학술용역사업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며 용역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앞으로 각 부서의 많은 용역사업 우선순위를 정확히 판단하여 본 사업의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규 의원은 민간 사회단체 지원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따져 물으며 “앞으로 예산수립 시 정확한 추계치를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봉순 위원장은 “이번에 실시한 결산 심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올해 예산집행 시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48회 정례회

충북도 예산집행의 철저한 검증활동 추진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희무)는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자문위원회 특강을 실시하는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먼저 6월 9일 실시한 자문위원 특강은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예산집행 추진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재정운영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결산 심사 기법, 의정활동에 대한 강화방안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출과 관련된 심사에서는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으로 인한 성립전 예산과 예비비를 동시 사용하여 집행한 것은 도의회의 심의를 전혀 받지 않는 사항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승인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관련 법률 개정으로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된 것과 관련하여 의회의 기구는 지방자치법에 근간이 되어 규정되고 있는 만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보다는 '지방자치법'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충북연구원이 인근의 청주시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편입되어 현 부지 및 청사건물 일부가 2018년도에 철거됨에 따라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확보를 위해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한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현재 충북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종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공모 선정 방식으로 민간위탁 재협약 추진에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리고 6월 9일 단양군 일원에서 실시된 '제55회 충청북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체 간담회를 갖고 위원회 일정 등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48회 정례회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에 앞장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48회 정례회 운영 및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도내 농가와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서 일손봉사에 참여하는 유휴인력에게 일정액의 실비를 제공해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 해소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양섭)는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8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5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의결했다.

먼저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도내 농가와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서 일손봉사에 참여하는 유휴인력에게 일정액의 실비와 임금지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가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일 또는 생산적 일손봉사의 종류와 생산적 일손봉사의 지원 대상과 지원규모 등 생산적 일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와 임금 등을 각각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 및 노후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과 도로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는 준공연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적용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6월 13일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심사에서 의원들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홍보활동과 홍보대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홍보위원을 증원해 투자유치 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유기농연구소 설립을 통해 유기농산물이 기존 농산물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용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또 곤충산업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기반으로 농업과 농가에 큰 소득원이 창출되도록 개발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48회 정례회

남부권역 지자체간 동반성장 위한 토론회 개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6월 9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실시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택시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초과 징수에 대한 세수추계 철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 부적절,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하천관리 적극 대처, 소방본부 인건비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예산 효율화 저해, 선진외국소방제도연수 예산액 불용 최소화, 단양소방서 건립계획 지연과 관련한 사전계획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철저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는 6월 17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남부권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진단과 새로운 도전전략'을 주제로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병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이언구 의장을 비롯한 박세복 영동군수, 조병옥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여철구 영동군의회의장이 참석해 인사와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태훈 충청북도 균형발전과장으로부터 '충청북도 남부권 균형발전 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설명 후 분야별 전문가 주제토론 및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남부3군 관계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170여명이 참석하여 남부권 발전 전략에 대한 진지한 담론을 마련하였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소관 실국에 전달해 남부권 균형발전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광진 의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충북 음성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지역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충청북도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6월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자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교육위원회

제348회 정례회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 제정



위원장
윤홍창 의원



부위원장
정영수 의원



김양희 의원



이광희 의원



이숙애 의원



이종욱 의원



교육위원회는 6월 14일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제348회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14일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김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는 학생들에게 통일·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교직원의 통일·안보교육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계획의 수립·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각종 통일·안보 교육과 행사 활성화를 위해 이를 시행하는 지역 사회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충청북도 청명학생교육원’을 공립 대안학교인 ‘청명중학교’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가칭)청명중학교는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18번지에 위치한 현 청명학생교육원을 폐지하고 동 부지에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3개 학급에, 학생수 40명으로 2017년 3월 개교하기로 했다. 계획안 심사에서 정영수 의원과 이숙애 의원은 학생들의 낙인효과와 학교위치 등을 우려하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받았던 현행 청명교육원의 문제점이 제대로 보완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양희 의원은 “운영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청명교육원을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창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충청북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고, 세입증대 방안 마련과 지방교육채 감소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48회 정례회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2차례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6월 15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 3,676억 9천만 원이며, 세입결산액 2조 3,667억 6천만 원에 세출결산액 2조 316억 7천만 원으로, 결산잉여금이 3,350억 9천만 원이 발생했다.

결산잉여금의 주요내역은 이월액 1,915억 7천만 원과 보조금 잔액 20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223억 5천만 원이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2015회계연도 불용예산이 예산현액대비 6.1%로, 지난해 3.3%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용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 등을 통해 연도 내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예산운용을 주문했다. 6월 16일 실시한 제2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는 세입이 4조 4,205억 1천만 원이며 세출은 3조 9,018억 1천만 원으로, 5,187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액 1,327억 3천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3,849억 5천만 원 등이다.

예결특위는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주요이슈인 학교용지 부담금 교부와 관련하여 2000년~2005년까지의 부담금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더불어 도교육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출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세계잉여금이 연차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계획성 있는 예산수립과 효율적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제348회 정례회

민·관·정 참여 범도민운동 공감대 형성 촉구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는 6월 8일 특위 위원회를 열고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에 대한 대책방안을 협의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희무)는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2일 제2차 특위위원회를 열어 박인용 충청북도 바이오환경국장으로부터 문장대온천개발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문장대온천개발 백지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활발한 특위활동을 벌였다.

도의회가 이처럼 개발저지 활동에 나선 것은 하루 2200톤 이상의 폐수가 발생하는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으로 인해 괴산 신월천 및 한강의 수질오염과 환경생태계 파괴 등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괴산으로 이동하여 괴산군·청천면·충주시·청주시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장 및 임원, 괴산군 환경사업소 등 관계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피해의 심각성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마친 특위위원들은 문장대온천개발 현장을 찾아 도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온천공의 온도 등을 체크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온천개발 저지 관계자들과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장대온천개발계획에 대한 환경파괴와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

점, 대응방안 마련에 대하여 열린 토론을 벌인 결과 괴산, 충주, 청주 지역만이 아닌 충청북도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민·관·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도출됐다.

또 온천법에 25℃이상의 온수로 돼 있는 온천수의 도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온천법을 개정 추진하고, 개발사업 대상지를 관할하는 지역환경청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지역 담당 지방환경청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개발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위해 수도권과 연합,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 ‘환경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괴산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온천개발에 따른 하천 자연생태환경영향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학술적 반대 논리를 개발하는 등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민·관·정이 함께 적극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희무 위원장은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문장대온천개발저지를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 무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공직자세 확립과 시·군 부단체장의 역할 제고를

일선 시·군 주민들이 도의원에 접수하는 민원은 해결이 몹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주민들이 시·군이나 도청 담당 부서에 민원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사항을 도의원이 관계부서와 협의하면 일부 부서에서 소극적·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괴산군 불정면 창산리 동원샘물공장 허가 연장문제,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제, 장연면 송덕리 양계장 신규건축문제, 소수면 몽촌리 폐기물처리 공장허가문제 등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입니다. 해당 민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때로는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의 부단체장 운영과 관련하여, 협업을 통한 충청북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충청북도지사는 도의원과 함께 도정 및 시·군정을 이해하고 지역의 행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엄 재 창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하천관리 문제 있다 10억원 예산에 그쳐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 기상이 변으로 국지성 호우와 각종 태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말 발생한 태풍 '루사'는 단 3일 동안 전국에 5조 1,479억 원의 피해를 주었으며, 강릉에 하루에만 870.5mm라는 엄청난 집중호우를 내렸고, 우리 충북도 1,605억 원의 재산피해와 사망 9명, 실종 1명의 인명피해, 그리고 3,96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태풍은 폭우를 동반해 짧은 기간에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의 2016년도 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10억 원밖에 되지 않아 전국 8개 광역도 중 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경북의 52억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전국 8개 광역도 평균예산(1km당 73만6천원)보다 24만 5천원이 부족한 49만 1천원이 편성된 것으로, 10억 원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하천은 충북 전체 하천의 1.44%인 29.41km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충청북도지사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하천범람 등 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 순 목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이제는 백지화 돼야...

지난 5월 20일부터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초안보고서 공람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개발 예정지 주민들의 환경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해 두 차례에 걸친 허가 취소판결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도의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장대온천 개발지 지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정치권에서도 여·

야를 막론하고 문장대온천 개발에 반대하는 분위기에 동참해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는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여러 방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온천법 개정안이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주 지주조합에서도 더는 지루한 싸움을 끝내고 본 사업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또한 충청북도에서도 불필요한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법적·과학적 논리를 조속하게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의원
(교육위원회)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해야

소상공인의 40%가 1년 내 폐업하고 69.1%가 5년 내 폐업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사업의 낮은 생존율은 과밀·치열한 경쟁에

따른 것이며,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존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의 소상공인들이 맘 놓고 열심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와 도내 기초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즉, 청년창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조직 설치와 소상공인 간 교류를 촉진시키는 교류회 활성화 지원, 벤치마킹 연수지원, 인큐베이터 시설 구축 등을 말합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실물경기의 흐름을 가장 실감하는 계층이며 민생경제의 당사자이고,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기반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직시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타 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필요하면 어떠한 지원도 주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숙애 의원
(교육위원회)

성폭력 예방과 근절, 근본적 접근 필요

저는 오늘 성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폭력의 근본적인 요인에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왜곡된 성문

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 사법기관의 인식부족, 예방교육의 부재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존중의식 미비, 이중적 성윤리, 내 가족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 등이 주요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각 기관 및 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및 지역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둘째,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넷째, 성폭력·성희롱 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인사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보호는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더 이상 이웃이나 동료의 피해를 방관하지 않는 모든 주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충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양섭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음성 지사 통폐합 철회해야

지난 4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표한 진천·음성지사 통폐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7월부터 전국 93개 지사 중 진천지사를 포함하

여 12개 지사를 감축한다는 소위 '지방조직 효율화'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해 관계자인 농업인에게 양해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더군다나 농업인이 납득할 수 있는 통폐합의 명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지사통합을 발표했기 때

문에 진천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지사를 음성지사로 흡수 통합하는 것은 지역의 위상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관리 등 농업시설 관리가 소홀해지고 고령의 농업인들이 가까운 진천지사를 방문해 해결하던 각종 민원을 음성지사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것이며, 지역 농업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크게 훼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천지사를 음성지사로의 통·폐합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방조직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진천지사를 음성지사로 통·폐합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광 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죽음의 땅 충북을 부르는 사드배치 결사 반대”

6월 15일 한 언론 매체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를 충북 지역 내 특정 장소가 최종 배치 후보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여 관련 부대가 위치한 충북 음성 지역의 극심한 혼란과 반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지속적인 기업체 이전과 산업단지 활성화로 인구유입이 이루어져 시승격까지 바라볼 정도로 성장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사드배치는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내몰

것이며,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제 발언은 거미줄식 정치·안보 논리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충북 음성과 도민들을 보호하고,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닌 합리적 해결점을 찾아보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사드배치와 같이 국가안보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사회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충북 음성 사드배치와 관련된 보도 이후 지역사회가 매우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충청북도에서도 충북도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QR코드(문자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제공

충북도의회는 그동안 의정활동 상황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노안환자, 노인 등 활자를 읽을 수 없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의정활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의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QR코드(문자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를 도입 했습니다

보이스아이코드는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앱(App)을 설치한 뒤 「충북의정」 우측상단에 삽입된 2차원 바코드를 스캔하면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방식입니다.

QR코드와 비슷하게 생긴 보이스아이코드는 책 2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정보를 작은 정사각형 바코드 안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보이스아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각장애인 전용 바코드 리더기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보이스아이코드에 대면 활자정보가 음성으로 변환됩니다.

보이스아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보이스아이’ 라는 명칭으로 검색하면 되고, 앱은 무료설치가 가능하며, 아이폰의 경우 설정 기능에서 보이스오버 기능을 실행하면 음성지원이 됩니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토크백(Talkback · 스마트폰 화면

을 읽어주는 기능)을 실행하면 됩니다.

또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혹은 스마트폰 거치대를 문서의 우측 상단 모서리에 맞춰 놓으면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스캐너 혹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보이스아이코드를 자동으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탐색하는 동안에는 ‘뚜뚜’하는 기계음이 들리고, 인식이 완료되면 ‘띠리링’하는 알림음과 함께 내용을 읽어주거나 텍스트를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당부 드립니다.

보이스아이 사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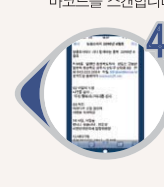
보이스아이 어플을 다운 받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음성출력 버튼을 누르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회 현장 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48회 정례회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임병운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근거 마련

[주요내용]

- 도시사의 책무
- 영주귀국주민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
- 영주귀국주민 지원사업 규정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양섭 의원)

[제안이유]

-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라 경관위원회 및 노후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도로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

[주요내용]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에 따라 경관위원회 조항 신설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봉순 의원)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 등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위탁운영 관련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음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병진 의원)

[제안이유]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정지원 대상 사업 추가 등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박한범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협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협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종규 의원)

[제안이유]

- 도민의 치매예방 등 관리에 관한 정책을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시행

[주요내용]

- 치매관리사업의 시행을 통해 도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시사의 책무를 정함
- 치매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양섭 의원)

[제안이유]

-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생산적 인력난을 해소하여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주요내용]

- 전일 또는 반일 등 생산적 일손봉사의 종류
- 생산적 일손봉사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등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양희 의원)

[제안이유]

- 학생들의 애국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각종 행사 등을 실시하는 충북지역 보훈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 지방보조금 지원 등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직제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

[주요내용]

- 직제 조정 : 혁신도시관리본부 (국 단위, 한시) → 정무부지사 직속, 혁신도시관리본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농어촌개발기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 등

[주요내용]

-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연장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숙애 의원)

[제안이유]

- 「진로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주요내용]

- 진로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 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의회사무처를 정원관리단위기관으로 정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정원을 삭제 등

[주요내용]

- 충청북도의회사무처 단위기관 신설 및 정원 조정
 -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총 정원 : +7명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 급학교 총정원 : 2,914명, 2,907명(7명)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2015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집행결과인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

[주요내용]

- 근거법령 추가
-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근거조례 추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신설, 폐지, 이전 및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변경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직제조정과 감염병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 배치 등 정원 조정

[주요내용]

- 직종·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일반직: 3급△1, 5급+2, 7급△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 지출건수 : 4건
- 지출결정액 : 603,653,000 원
- 지출액 : 568,960,350 원
- 다음연도이월액 : 0 원
- 잔액 : 34,692,650 원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여름철 조심해야 할 질환



가정의학과 가순형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여름철 땀막별 아래에서 수분 섭취 없이 활동을 하다가 걸릴 수 있는 일사병, 일사병의 사촌 격이지만 그 위험도는 훨씬 높은 열사병, 바깥 날씨와 달리 서늘한 실내에서 생활하다 걸릴 수 있는 냉방병 등이 여름철 건강에 대표적인 주적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가순형 원장(가정의학전문)에게 한여름에 조심해야 할 관련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적당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일사병 막자

땀별 아래 오래 서 있거나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 흔히 일사병을 떠올린다. 일사병이란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체온이 섭씨 37~40도 정도로 상승하는 위험한 증상이다.

보통 땀을 많이 흘리면서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지 않았거나, 염분과 무기질이 낮은 음료로 수분을 섭취했을 경우 발생한다.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는 실신으로 이어진다.

독거 노인 폭염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일사병의 증상이 나타날 시 환자의 옷이 두껍다면 벗기는 것이 좋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해 바르게 눕히며 즉시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찬물 등으로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중추신경계까지 위험하게 하는 열사병

열사병은 방치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더위로 인해 열사병에 걸리면 시상하부에 위치한 체온 유지 중추가 기능을 잃고 열을 외부로 발산하지 못해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중추신경계, 간,콩팥 등 여러 장기가 손상된다. 전조증상은 일사병과 같이 무력감, 평형장애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본적인 응급 처치법은 일사병과 같지만 열사병은 중심 체온의 상승이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찬물로 체온을 낮추려고 하다가는 몸 혈관이 수축되어 오히려 상

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적당한 온도의 물로 몸을 닦아주고 바람을 일으켜 열이 증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과도한 냉방기기 사용이 원인인 냉방병

여름철 이유 없는 두통, 전신피로, 소화불량, 설사, 생리통 등에 시달린다면 냉방병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실내외 온도 차가 5도 이상 되는 곳에 오래 있으면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을 초래해 호르몬 분비와 스트레스 조절 반응에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냉방병에 걸리는 것이다.

더불어 에어컨의 냉각수나 공기가 세균에 오염되어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 시원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을 틀고 창문을 닫아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과 미세물질이 쌓여 발생하는 밀폐 건물 증후군도 냉방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5~6도 이상 나지 않도록 에어컨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에어컨 필터는 최소 2주에 한 번씩 청소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고 냉방병 증상이 있을 때에는 냉방기구 사용을 중단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세종지부 메디체크〉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도 처벌될까?

변호사 김 용 결
법무법인 명장



대기업 부장인 A는 같은 회사 대리인 B와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괜찮으니깐 네가 운전해. 집 앞 골목에서 내려주면 돼” 라고 말하며 B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차량 뒷자리에 탔다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대리운전이 곤란한 국도 휴게소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는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홍보하여 국도 휴게소에 정차한 화물차 운전자 D를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왔다.

D는 식사를 하며 소주 2병을 마신 뒤 화물차로 돌아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C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되었다.

(위의 사례들은 음주운전 사건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통칭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로 가중처벌 받게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위의 규정과 형법상 방조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죄의 방조범 처벌 논란

그런데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유발한 사람도 음주운전 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방조행위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음주운전 방조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조치이며 방조범 처벌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어 여전히 논쟁중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는 유심히 지켜볼 일입니다.



강화된 음주교통사고처리기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운전자 엄정처벌을 위한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① 음주운전 단속 강화 ②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③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④ 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등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음주운전자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술에 취한 사람에게 음주운



△ 충북도의회는 6월 20일 의원연찬회 일화로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신청사 건립에 대한 현황을 듣고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행사에 경북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를 요청했다.



△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은 6월 3일 무심천 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된 '2016년 충북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했다.



△ 이언구 의장과 도의원들이 6월 9일 이시종 도지사 등과 함께 단양에서 개최된 '제55회 충북도민체전' 개최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6월 17일 옥천 안내초등학교와 영동 학산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 문장대온천개발지정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괴산군청 소회의실에서 '문장대온천개발지정 범도민대책위원회' 등과 간담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위원회는 5월 26일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드림관에서 개최된 '제6회 충북상업경진대회 개최식'에 참석해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교육위원회는 5월 28일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충북본부를 방문해 충북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용화에 위치한 온천개발사업장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6월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을 초청해 '반 부패청렴의 실천적 과제'란 주제로 청렴특강을 개최했다.



이 의 영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간 바둑대회로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는 미래에 인간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부분 처리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미래의 예측이 가장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농업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농업이었지만 최근 다양한 변수가 많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농업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은 기상예측, 천재지변 및 각종 변수를 융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향후 미래 농산업에 활용될 경우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래 들어 보도되는 뉴스에 따르면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농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할 경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필자의 지역구인 오창 지역은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을 낀 너른 곡창지대로 예로부터 양질의 청원 쌀 주산지로서 농산물 생산이 풍요롭고 유기농업·근교농업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오창은 약 10여년 전 부터 중부지방 발전을 위하여 총부지 9.4km²에 6,720억원을 들여 첨단과학산업과 21세기 생명공학의 핵심 분야가 될 의약 분야가 총 망라된 과학산업단지가 완성되었다. 인구 또한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약 5만 8천명이 넘는다.

이렇듯 오창지역은 풍부한 인적자원과 융복합적산업 시스템이 구축된 계획된 도시근교형 지역으로 향

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 인프라를 충분히 지닌 오창은 미래 충청북도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작년 셀트리온이 인천에서 이전하여 오창에 동지를 틀었다.

셀트리온이 신약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기존에 입지한 유한양행, 녹십자 등 굵직한 제약회사 및 유관기관 또는 협력업체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충청도가 추진 중인 청원구 주중동 일대 밀레니엄타운에 국립청주해양박물관이 조속히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내륙도인 충북은 도민들이 바다를 쉽게 접할 수 없어 멀리 떨어진 바다를 찾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충청도에 해양박물관이 꼭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도는 지리적 잇점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고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십 년째 개발방안을 찾지 못한 밀레니엄타운에 해양박물관이 입지하면 토지의 활용도와 주변상권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끝으로 필자가 제안한 오창지역 의약클러스터 구축, 국립청주해양박물관의 조속한 건립을 통해 충청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4%경제의 조기달성을 기대해 본다.



청년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김 봉 회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인터넷 검색 또는 신문 지면을 펼쳐보면 ‘N포세대’, ‘헬조선’, ‘열정페이’ 등 유행처럼 번지는 신조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을 표현한 단어라서 그 의미들이 궁금하여 찾아본 순간 현재 청년 실업자가 느끼는 취업 장벽과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줄지어 청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지만, 정작 대상자인 청년들은 체감도가 낮다는 평이 대다수여서 지역 청년이 느끼는 소외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청년 실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충북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2번째로 청년지원과를 신설하여 청년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설립하였으며, 지난 5월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정책 초기인 만큼 현 시점에서 가시적 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그간 추진한 청년정책이 소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이 얼마 전 각종 언론보도에 실렸다.

그 내용을 보면 도내 11개 지자체 가운데 6곳은 청년 관련 정책이 전무하였으며, 청년정책 사업 예산 중 70% 가량이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나타나 보여주기식 청년정책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청년정책사업 같은 경우 중장기적 관점으로 과감한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정책예산을 소요한

다는 의미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책 특성상 투자효과가 뒤늦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장이 포퓰리즘적 정책에 예산을 치중하기 보다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과감히 투자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로는 실업률 개선 지표 개선을 위한 정부·지자체 직접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청년 실업 대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예로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즉각적인 일자리 창출로 궁극적 목적인 민간 취업을 돕기 위해 취지였으나, 공공기관 일자리에 의존하게 되어 취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무색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 청년 일자리 핵심은 묻지마 식 양적 확대 보다는 질의 문제라는데 포커스를 맞추어 해결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청년 일자리 해소의 핵심 키는 기업 유지라는 것을 충북에서 적극 헤아려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의 청년들은 학점관리, 스펙쌓기 등으로 낭만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앞날을 준비하는 세대이다. 하지만 많은 영역의 자동화, 정년 연장 등으로 신입사원 취업의 문은 더 좁아졌다.

오늘날 청년실업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니어서 실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청년 문제해결에 있어서 적극 앞장서는 충북이 되어 청년 1번지로 불리는 날을 희망해 본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